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진 편집국장: 조선근

1994년도 직분자 단기수련회

1월 12-13일, 당회장 목회지침 및 각 직분별 특강 등으로

1994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엡 4:13)의 표어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등 다섯 가지의 목회지침 아래 충현의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수련회가 열린다. 금년 단기 수련회는 1월 12일(수) ~ 13일(목)에 걸쳐 오후 6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교회당과

교육관에서 열린다. 새해를 맞으면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를 확립하며 영적무장으로 견고히 서기 위한 이번 수련회 첫날 1부에서는 김상복 목사의 '직분자의 영성과 사명감'이라는 주제와 2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94년도 목회방침과 전망'으로 강의한다. 둘째날에 1부에는 김상복 목사의 '교회부흥과 직분자 헌신'의 설교와 각 직분별 강의 제목이 아래와 같이 있게 된다.

구 분	1부 예배 (오후 7:00~8:50)	2부 특강 (오후 9:00~10:00)
첫째날 (1월 12일)	직분자의 영성과 사명감 <김상복 목사>	94년도 목회방침과 전망 <신성종 목사, 당회장>
둘째날 (1월 13일)	교회부흥과 직분자 헌신 <김상복 목사> (합동부흥교회 담임목사)	
	대 상	강 사
	교역자	이종표 목사
	장 로	김상복 목사
	안수집사	윤용규 목사
	권 사	최인근 목사
	교 사	이조웅 목사
	찬양대	현상민 목사
	교구일꾼	김성윤 목사
	전도회	임성환 목사
	직 원	김양홍 목사
		제 목
		지도자의 비전과 협력사역
		교회갱신과 장로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과 자세
		구역에서의 권사의 역할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
		찬양대원의 영성과 비전
		94년도 교구의 역할과 사명
		전도회 운영과 비전
		직원의 역할과 사명

수도주교연합회 성경고사대회 및 성가경연대회 우리 교회 학생들 다수 입상

지난달 28일(화)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 수도주교연합회 성경고사대회 및 성가경연대회에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다음과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다. 초등6부 찬양대는 참가 전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중창/ 최우수상(중등3부)
1등(중등2부)
3등(중등1부)
합창/최우수상(중등3부 찬양대)
3등(중등1부 찬양대)

· 성경고사대회

- 유년부문: 최우수상(백지연, 초등2부)
2등(박범유, 초등2부)
3등(김세연, 초등2부)
- 초등부문: 1등(이영환, 초등5부)
3등(양반석, 초등5부)
- 중등부문: 3등(김진도, 중등2부)

· 성가경연대회

- 유년부문: 독창/
1등(최예슬, 초등2부)
2등(김연아, 초등3부)
3등(유연주, 초등3부)
합창/최우수상(초등3부 찬양대)
- 초등부문: 합창/ 대상(초등6부 찬양대)
- 중등부문: 독창/
최우수상(정상훈, 중등3부)
2등(김예스터, 중등3부)

고등부수련회로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막 올라

10(월) ~ 13일(목), 충현기도원에서

교회학교 고등부수련회가 오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고등학생의 시간관리'라는 주제로 올바른 시간사용을 통해 자기관리 및 균형있는 생활을 목표로 열리는 이 수련회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20여명의 교사가 조별성경공부 인도자로 참여하게 된다.

고등부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중등1부가 1월 19일부터, 중등2부가 1월 24일부터, 청년2부가 1월 25일에 각각 시작되며 국민학생부는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 예배로 새해를 새해 첫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다. 1월 1일 자정 에 드린 예배(사진 맨위)에는 본당 1, 2, 3층이 가득차서 갈릴리움에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1년 내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예배가 끝난후 만나홀에서 교역자·장로들의 신년하례식(사진 가운데)이 있었다. 또한 1월 4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교역자와 직원들이 함께 모여 1994년도 시무식(사진 아래)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왜 이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는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당시 율법학자들의 분류법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 613가지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613가지를 도저히 다 기억하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조금 더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 사람의 몸에는 248가지의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억하기 쉽게 우리 몸과 연결을 시켜서, 성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248가지의 율법을 좀더 중요한 무거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덜 중요한 율법이라 하여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되어진 율법들을 전부 365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귀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등등의 모든 도덕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약의 613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1-4계명), 다시 말하면 종적인 대신(對神)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이웃에 대한 계명(5-10계명), 즉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그리고 39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를 요약했습니다.

2.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내적인 생명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는 말은 지식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지식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라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39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은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따갑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몽둥이로 얻어 맞아도 아프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끔찍 기릴 때 엄마가 차가운 수건을 바꿔 얹어주

충현강단



큰 계명에 대한 논쟁 (마 22:34-46)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며 밤새도록 한잠을 못자고 간호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비결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의 아픔 이상으로 아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피를 나누는 가족처럼, 자녀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3. 사랑 실천의 방법과 결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받고자 하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둘째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줄 때에 보상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눅 14:13, 14)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출 22:25) 셋째로 속이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엡 4:25) 넷째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

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3)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응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사 58:6-12). 둘째로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시 15:1-3)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

을 하십니다. 셋째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롬 13:8).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롬 13:10). 우리가 항상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613가지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느 하나도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요일 3:16-18).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엄청난 책망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계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말하기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조차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요일 3:16).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의 중요성

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느냐는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서로 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자리에 따라 그 용도가 다르고 값이 다르다는 점이다. 똑같은 목이지만 대들보와 석가래를 연결하면 큰 일을 한다. 그러나 벽에 박혀 있으면 못이나 거는 일이 고작이다. 그런데 이 못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복도에 박혀 있으면 사람들의 못이나 찢을 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공헌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해만 줄 뿐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 새해를 맞으며 ●

새힘을 얻어 함께 일하는 새해맞이

성 봉 환

(목사, 제10교구담당, 조동5부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차별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1994년이라는 1년 365일 8,760시간입니다. 이만한 날들과 시간들이 길든지 짧든지 어김없이 지나갈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새힘을 얻는 새해맞이를 소망해 봅니다. 새힘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요. 누가 새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을 마시려면 우물에 가야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만이 얻습니다(사 40:3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새힘을, 하늘의 힘

을, 영혼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힘을 365일 8,760시간 늘 새롭게 받아 살아가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새해맞이를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회개적 추수를 기다리는 저 밭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환히 뜨고 추수할 밭을 빙 둘러 보고 싶습니다. 날씨가 좋다 흐리다 하지 않고, 이 시대의 요청과 외침을 간파하고 분별해야(눅 12:56)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위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창 18:32)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힘을 얻고 사는 성도때문에 슬집들이

문을 닫고, 4만 교회 때문에 저질 비디오와 음란 영화와 벽보와 기관들이 망하게 되고, 1200만 성도 때문에 교통질서가 바로되고 십계명이 헌법 같은 94년 신한국이 되기를 기도하며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추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방송국, 출판사, 신학교, 기도원 등이 있고, 600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도협회, 파이디온선교회와, 청소년을 향한 청소년선교회, 십대들의 쪽지와, 젊은이를 향한 IVF, CCC, 네비게이트, 학복협과 400만 장애인을 향한 밀알선교회 등과 같은 기관들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난한 농촌학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육연구원, 창조과학회 등이 추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를 찾아 함께 일하는 새해맞이를 계획합니다.

나 혼자서 추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적절한 추수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분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롬 12:3), 말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요일 3:18). 땅에 파묻지 말고(마 25:25), 그것으로 곧 바로 장사해야 합니다(마 25:25).

16) 부지런히(롬 12:11), 마음을 다하여(골 3:23), 충성하고 싶습니다(계 2:10).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나누고 하는 기도동지회, 말씀동지회, 찬양동지회, 전도동지회, 구제동지회 등이 불같이 일어나 전국토를 뜨겁고 늘 푸른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새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조화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새해맞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한다고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아야 되겠지요. 무엇을 조화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입니다. 5만교회 1200만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적절하고 질서있게(고전 14:40) 살아갈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는 예수님 재림때까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다 되어 보십시오. 아멘!

● 새해를 맞으며 ●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김 보 형
(대학부회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

나에게 주신 94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나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93년 1년을 회고해보면 올해처럼 힘들고 나에게 시험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주변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들, 게으름 등의 요소들이 나를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처음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봤고 날 좀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것이겠지 하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아직도 환경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도 있었지만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앞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다. 덕분에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의 실재를 실감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1년을 대학부의 회장으로 맡기시는 그 뜻은 나로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감히 고백해 본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예수 앞에 완전히 그를 무너뜨리고, 새로 태어나듯 사도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고,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랬고, 야곱의 경우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려는 사람은 항상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었다. 이제까지 나는 너무 나를 세우고 나를 바라보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 94년 1년을 대학부의 회장으로 세우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 대학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었는데 조금씩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하다. 결국 대학부의 회장이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말 그대로 섬김과 인내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그 자리를 통하여 나를 키우고 또 대학부를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지금 나는 94년 1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참 감사한 것은 나와 함께 대학부를 섬길 임원들의 갖가지 모습이 또한 나로 감사를 감추지 못하게 한다. 모두들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기를 기도하는 참 멋진 형제, 자매들이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총현교회와 대학부를 섬겨 나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내에 이루어진다면 참 멋진 임원단과 대학부가 될 것이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것 저것을 생각하다 보니 참 감사할 것 뿐이다. 새해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할 제목이다.

◆ 사람이 있는 곳 ◆

그래 종호야, 대한민국 만세다

오늘은 1993년 12월 26일 사랑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동안도 이롭없이 봉사해준 교사들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진다.

힘에 부대끼는 아이들만 지도하는 대학부의 젊은 힘장이 선생님들, 힘으로는 밀리지만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미끄러운 길이지만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 기사 집사님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을 소개할 때 베스트 드라이버 선생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수고로 그렇게 예배가 준비된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

늘 웃어서 그런지 큰 입을 벌리고 웃으며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 촛점을 잃고 천정만 바라보는 아이, 예배시간 내내 우우 소리를 지르는 아이, 그러나 그들도 몇 주 후면 분명히 달라지리라.

헌금시간이다. 피아노 반주소리에 두 손을 모으며 정성을 바친다. 봉투마다 서툰 글씨로 감사의 내용을 적어 헌금한다.

설교시간이다. 이게 웬일인가? 미지가 갑자기 땀박질을 한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계속 뛰어다니던 철이가 조용해졌다. 설교를 듣던 어떤 아이는 갑자기 뒤돌아서며 이마가 흰하게 보이는 선생님의 이마를 힘을 다해 때린다.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불편했던 모양이다. 선생님은 미안하여 안절부절 어쩔줄 몰라한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허프를 두드린다. 자기 선생님이 장하게 보여지는 것 같다.

그래 너희들의 선생님은 모두가 장하신 분들이야. 너희들의 신발과 가방을 늘 챙겨주기 때문이다. 만약 선생님께서 너희들의 가방을 점검하지 않으면 너희 가방 속에는 아마 성경이 여러권, 찬송가도 여러권이 들어있는 무질서의 현상일거야.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너희들의 것이지 남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2부 울동시간이다. 기어가는 아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울동하더니만 속이 차지 않아 뛰어 나와서 울동하는 아이, 드러누워 울고 있는 아이, 예배시간 뒤돌아 앉아 선생님의 눈길을 떠날 수 없는 아이, 혼자서 계속 웃고만 있는 장가 가야할 청년 남건이, 모두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자신있게 노래한다.

언제나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찾아오는 종호, 왜 늦었느냐고 물으니 장로님 대통령을 만나고 온다며 대한민국 만세 그런다. 그래 귀엽다. 종호야 대한민국 만세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다. 승엽이가 3일 동안은 한숨도 자지않고 밤도 굶었다고 한다. 얼마전 낙마이가 경험했던 증상인 것 같기도 하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마치 목사인 내가 전문의사 선생님이라도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모양이다. 염려를 같이 나누려고 애쓰지만 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주님 도와 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다. 돌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거칠고 비타협적인 성격으로 굳어지지 않으며 비둘기 자라지 않고 원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비록 장애를 안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분명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며 승리하며 소망 중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게 하소서. 아이들의 장애가 마치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처럼 느끼는 부모님들의 어른거리는 눈망을 속에 저 건너편의 갈보리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임 성 환(목사, 제2,23교구 지도, 전도위원회, 사랑부 지도)

중등부 선교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쳐

선교 위원회에서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도를 해오던 중 지난 9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충현 기도원에서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선교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 수련회에는 그동안 매 주마다 모여서 선교 기도를하던 중등부 학생들이 33명이 참석했다. 강사는 선교위원회 지도

인 김양홍 목사였으며 터어기 선교사로 파송될 심양섭 선교사가 선교 특강을 하였다.



당회장 신성종목사 설교집 두권 출간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신간이 두권 출간되었다. 92년 9월부터 93년 5월까지의 주일아침 충현의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34편을 묶은 설교집 「능히 이기리라」(충현출판사, 274P, 4,500원)와 신성종 주재별 시리즈 2권인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도서출판 하나, 376P, 7,500원)이다.

「능히 이기리라」는 창세기~룻기까지를 일곱장씩 강제한 특색있는 설교집이다. 그동안 충현의 가족들에게만 선포되었던 설교들이 책으로 출간되어 이제 누구나 원하는 성도들은 지면을 통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도서출판 하나에서 출간한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저자가 어느 책보다도 애

정을 가지고 집필한 것으로 교회성장의 각종 이론에 실제경험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좋은 목회자료를 필요로 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더 깊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9일(주일) 은평교회 장로은퇴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님 :
10일(월), 11일(화) 고등부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11일(화) 기독교변호사협회 예배설교(사랑의교회 소망관)
12일(수) 충현교회 단기수련회 강의,
15일 SBS방송국신우회 예배 설교(SBS방송국사옥)
2.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12일(수), 13일(목)에 있는 단기수련회를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각 부서와 기관마다 부흥을 주시며 94년도에는 갑질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94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소서.



핸드벨 작은 연주회가 지난달 31일 갈릴리움에서 열렸다. 그동안 주일 1부 예배에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맡았던 핸드벨연주대가 지난해 말로 그 역할을 끝내게 되었다. 이에 핸드벨 연주대는 송년연주회로 모여 핸드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서를 찾아서 ♣

상담실 / 선교관 205호

누구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들어줄 수 있는 곳

우리 교회에서는 교우들의 일신상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야기하여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계하게 함으로 보다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여 지난 1988년 8월 '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실을 개설한 이래 상담실은 늘 조용한 가운데 분주했고 상담전화가 끊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되었다.

선교관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우측에 있는, 교회 동문에서부터 교육관과 본당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 마치 어느 회랑(回廊)과 같은 운치를 맛 볼수 있는 창을 가진 방이 바로 상담실이다. 이 상담실에는 고즈넉하고 정갈한 방에 꼭맞는 어머니와 같이 인자하고 늘 따뜻한 미소와 나긋나긋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이두란 전도사를 만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상담실장.

충현교회에 온지 1월이면 만 29년째, 그동안 심방전도사로 일하다가 88년 8월 상담실을 개설한 이후 계속 상담실을 지켜오고, 88년 말로 정년퇴임한 후 이제까지 상담역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로서 6년째.

상담은 주로 내방하여 하는 경우와 전화상담으로 구분되어 진다. 전화상담의 경우 익명의 경우가 보다 많고 익명일 경우 타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상담자 또한 우리 교회 교우 뿐만 아니라 타교회 교인도 많은 편이다.

상담내용은 신앙상담(성경적 내용에 관한 질문, 구원의 확신, 십일조, 성수주일, 이단종파 등)과 가정문제(교부간의 갈등, 부부문제, 자녀교육문제, 잘못된 성관계 등), 결혼상담, 취업상담 등 온갖 가지가 다 상담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 상담실에서 그런 모

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적인 영역인 정신질환 문제나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우리 교회 교우 중 그런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상담'이라는 말과 같이 우선은 누구나가 쉽게 찾아 오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어려움이 많지

요, 특히 참으로

여러 갈래로 얽

힌 사연을 가지

고 장시간 이

야기하는 경우

는 참으로 힘

듭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보

면 머리가 어지

럽고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내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말을 부치며

기분을 풀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삶의 세파에 휩싸여 죽기를 작정하

고 온 사람, 난치병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

낙심한 사람, 이혼을 작정하고 찾아온 사람

등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전도사는 내방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상담이 끝나면 꼭 기도를 해준다고 한다. 기도를 함께 하면 거의 모두가 울고 그러다 보면 이 전도사도 함께 울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결국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심장이 못되면 상담

하기가 참으로 어

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담실'을 통

해 자신의 어

려움을 토로

하고 위로를

받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이다.

상담실 문은 언제나 열

려 있다. 누구든지 가서 두드

리면 천정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이 있다.

상담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은 3시까지(주일 1부 예배시간 제외)이다. (형)

